

나의 전문성을 찾는

길

글. 김준환

월간 방송과기술 편집위원(EBS)

나의 꿈은 전문적인 기술의 이해를 토대로 플랫폼·서비스를 기획하는 엔지니어가 되는 것이었다. 입사 후, 꿈꿔왔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전문성을 갖출 수 있을지가 늘 관심사였고, 이는 주변 무엇이든지 관심을 갖게끔 하고, 자기계발을 멈추지 않게끔 하는 주요 동기부여 요소였다. 하지만 신입 때의 열정과 달리, 생각보다 방송국에서 공부해야 할 시스템은 아주 방대했고, 제작과 네트워크, 송출 업무를 경험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종종 경험과 지식의 부족함에서 생기는 오묘한 막연한 감정과 불안감은, 늘 피하고 싶으면서도 다음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극복해야만 하는 시험 관문이었다.

특히, 나에게 유독 높았던 관문은 기술기획부 업무였다. 사옥 이전으로 인한 시스템 이전구축, ERP 개발, UHD 방송인프라 추진계획 수립 등의 큰 이슈로 밤새 고민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도 많았지만, 무엇보다 나를 힘들게 했었던 것은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e-Motion)을 ABU에 런칭했던 일이었다. 포스터와 카탈로그를 제작하는 일부터, 현장에서의 설명을 위해 시스템의 주요 기능들에 대해 꼼꼼히 이해해야 했고, 출국 당일 새벽까지 발표할 자료들을 몇십 번씩이고 다시 확인하면서 수정했다. 현장에서 ABU 회원사 간의 다양한 회의를 진행할 때면, 무엇하나 참고할 레퍼런스가 없어 순간순간 급급히 대처했었고 한 회의가 끝날 때마다 등줄기가 식은땀에 흠뻑 젖었던 강렬한 막연함을 느꼈었다. 무사히 모든 일정을 마무리 짓고 귀국하는 비행기를 타고서야 인생 처음 느껴보는 지독한 막연함으로부터 해방감이 들었던 것 같다.

나를 막연하게 했었던 또 다른 요소는, 보조금 확보를 위해 정부 유관 부처 담당자를 설득해야 하는 일이었다. 며칠 동안 밤을 새워가며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들고 방통위, 기재부의 예산설명회에 참석하거나 부족한 논점을 보완하기 위해 서면으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관료들의 관점이나 경제학에 기반한 논리는 그들과 소통하는 내내 지속적인 막연함을 선물로 주었다. 결국, 이 풀리지 않는 숙제를 극복하기 위해 선택했던 대안은 개인 휴가를 내면서 일반대학원에 진학하는 것이었다. 내가 진학한 대학원은 경영과 경제, 그리고 정책에 대해서 폭넓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곳으로, 선택과목으로 들었던 행정대학원 수업의 경우 대부분 실무 사무관들과 기초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 그들과 조별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정무직·선출직 공무원들의 관심에 대해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게 약 2년간, 저녁과 주말, 그리고 잠을 반납해가며 학교에 오고 가며 천천히 정부 부처와의 시야를 맞출 수 있었고, 그렇게 나의 막연함은 천천히 극복되었다.

지금의 기획 파트에서는 업무영역의 범위와 경계선 자체가 모호해서 주는 크고 작은 막연함이 있다. 특히, 코로나처럼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면 라이브특강, 온라인클래스와 같은 서비스의 신속한 오픈을 위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임시 채널 승인을 위한 문서를 만들거나, 빠른 정착을 위해 다양한 매뉴얼과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했다. 인력 운영계획과 같은 기획안을 작성할 때면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각 논리의 가중치가 과연 인사권자의 입장에서도 동일할지, 또 내가 제안한 시사점이 과연 실무적 관점에서 실현 가능할지에 대해 고민하느라 주말 동안 끈질기게 씨름했다. 하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다양한 막연함을 거치면서, 조금씩 어떤 업무를 대하더라도 대범해질 수 있는 자세를 배워가는 것 같다.

돌이켜보면, 신입사원 때부터 지금까지의 나의 여정은, 막연함을 만나고 극복하는 것에 대한 연속이었다.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울 때면 이러한 막연함에 타협하고, 남들이 보기에 적당한 수준에서 마무리 짓고 싶을 때도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끈질긴 인내의 과정이 없었더라면, 지금과 같이 어떠한 문제가 와도 극복해낼 수 있으리라는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생길 수 있었을까. 지금도 겨우 조금 선명한 미로 중간에 서 있을 뿐이지만, 매번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무던하게 견디고 견뎌서 내딛어보는 이 한걸음의 발자국이, 내가 꿈꾸는 엔지니어로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단 하나의 답이라는 생각이 든다.